선생님들이 뭉쳤다 야외무대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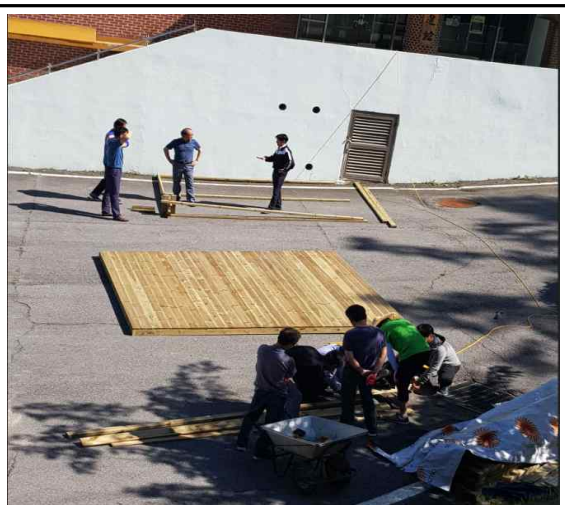
청평중학교 야외무대 "블루스카이"

청평중학교에 야외무대가 생겼다. 특이한 점은 교사들이 직접 제작을 했다는 점이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학생들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를 위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사들이 모두 뭉쳤다. 작업을 하느라 땀이 송글송글 맺힌 선생님들에게 부지런히 시원한 음료수와 수박을 나르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정겹다.

이렇게 제작된 야외무대에서 5월 25일 첫 번째 버스킹대회가 열렸고 많은 학생들이 관람을 하였다. 푸른 녹음에 둘러싸여 자유롭게 공연을 관람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공모로 들어온 48개의 야외무대명 중 최종 선정된 "블루스카이"는 전교생 스티커투표 및 교사와 학생자치회의 심사로 결정된 것이다.





작업 모습



'버스킹데이' 공연 관람 모습